

榮山江流域 甕棺古墳의 發生과 그 背景

김 낙 중 (국립문화재연구소 미술공예연구실)

I. 서 론

II. 자료분석

1. 옹형토기의 특징 및 구분
2. 제1형식 옹형토기(옹관)의 지역적 분포
3. 출토유구·매락, 용도
4. 연대검토

III. 옹관고분 발생 배경

IV. 결 론

국문 요약

2세기 후반 이후 凡馬韓的으로 사용되던 대형 옹형토기는 백제가 우월적 정치체로서 성장함에 따라 점차적으로 범위가 좁아지며 용도가 바뀌는데, 3세기 후반 이후 영산강유역에서 저분구묘의 중심 매장시설로 기능을 전용하면서 옹관고분이 등장하게 된다. 옹관의 형태와 양식이 통일되면서 백제와 구별되는 상징적 스타일로 강화, 사용된 것으로 추정된다. 즉 마한을 구성한 대등한 정치체들의 공통적 상징이 백제와 구별되는 영산강유역이라는 광역적인 집단의 상징으로 바뀐 것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과정은 백제와 정치적으로 구별하고 맞서야 하는 대내외적 요구를 충족시키는데 필요한 영산강유역 집단의 결집을 위한 통합 이데올로기의 반영이라고 판단된다.

주제어 : 영산강유역, 옹관고분, 표상적 양식, 정치체

I. 서론

영산강유역 고대사회의 표지적 고고학 자료는 대형옹관을 매장주체로 한 고분이다. 영산강유역이 4세기 중엽 이후 백제에 복속되었을 것이라는 역사학계의 大勢論을 再檢討하도록 한 이 지역의 독특한 묘제이다. 옹관고분에 대한 연구는 그동안 옹관 자체의 형태적 연구뿐만 아니라 분구, 부장유물을 종합적으로 다루어 많은 진전을 보았다.

그리하여 專用化된 단계 이후의 옹관의 형태적 변천과정은 어느 정도 자세하게 다루어졌다(成洛俊, 1983; 李正鎬, 1996). 그러나 대형옹관의 등장과 그 배경과 관련하여서는 영암 선황리와 같은 초기 옹관은 일상용기의 형태를 계승한 대형옹관의 효시적인 것으로 볼 수 있으며, 3세기 전반에는 발생했다고 보는 수준(서성훈·성낙준, 1986)에 머물렀다. 그런데 영암 선황리 옹관과 같은 초기의 옹관이 나주 복암리 등에서 봉토를 갖춘 완성된 묘제로 자리 잡은 것이 확인되어 지금까지 논의된 옹관고분의 변천과정에서 반드시 언급해야 할 한 단계로 인식되었다. 또한 이러한 옹관의 등장배경과 관련하여 유사한 속성을 가진 대옹이 마한의 영역에서 골고루 출토되는 점에 주

목하여, 마한과 백제의 정치문화적 역학관계가 작용한 결과가 아닌가 추정하게 되었다(국립문화재연구소, 2001a). 이 글에서는 이러한 대응 자료를 분석하여 형태, 분포, 출토 맥락, 용도, 연대 등을 살펴보고, 백제의 성장과 압박에 대한 영산강유역 집단의 정치적 대응이라는 관점으로 논의해 보고자한다. 논의의 주요 틀은 광역적 대등 정치체 연합(마한)이 특정 정치체(백제)의 세력강화에 대응해 일부는 자의적 또는 타의적으로 통합되고, 정치문화적 배경이 다른 지역집단은 새로운 정치체에 대응해 응집력을 키워간다는 것이다. 이러한 정치문화적 과정에 따라 지역집단내 계층성과 광역적이면서 느슨한 종족성을 상징하던 양식(거치문 대응)이 새로운 기능, 즉 매장시설로 전환, 상징성이 종족성과 결부되면서 집단통합에 정치적으로 이용되었을 것이라는 가정을 밑바탕에 두고 진행한다.

II. 자료분석

1. 용형토기의 특징 및 구분

여기서 주목하는 甕形土器는 영산강유역 용관고분의 성립기 용관(제1형 용관)¹⁾의 속성인 회색 경질, 대형, 난형 동체, 긴 목, 외반 구연, 사면처리된 두꺼운 구순, 동부 격자문 타날, 저부 돌기, 鋸齒文 등의 속성을 일부 또는 전부 공유하는 토기이다. 영산강유역 이외 지역 주거지에서 출토된 용형토기는 약간의 형태상 차이가 나는 것도 있고, 일부 한 두 속성이 결여되기도 하나 전체적으로 비슷한 것을 자료로 선택하였다. 가장 특징적인 속성은 크기 및 전체적인 형태이나 이외에도 장식문양으로서의 거치문을 중요하게 다뤘다.

거치문은 동체부에 격자문을 타날한 시문구의 모서리를 이용, 주로 정부와 동부의 경계에 한 바퀴 돌려 시문한 것이 일반적이다. 영산강유역의 것은 주로 한 줄만을 돌렸으나 중부지방의 것은 두 줄을 돌린 경우도 있고, 거치문 이외에 다양한 형태를 띤다. 풍납토성 주거지의 경우 35점의 대응 중 문양이 있는 19점 가운데 거치문이 시문된 것은 5점이고, 무문과 능형문이 비슷하게 나타나며, 타원문도 있다(국립문화재연구소, 2001b). 능형문은 거치문과 같거나 약간 늦은 시기에 나타나 거치문이 사라진 뒤에도 무문의 동체와 결합하여 이어진

1) 영산강유역에서 성행한 대형의 전용 용관의 형식적 변천과정 중 가장 이른 시기의 용관을 말하며 여기서는 제1형 용관이라고 한다(국립문화재연구소 2001a). 기존에 초기형이라고 한 구경부가 직선적으로 크게 외반하는 난형의 대응은 제2형 용관, 꺾슬형 대형 용관은 제3형 용관이라고 부르고자 한다.

다. 능형문이 시문된 대용은 몽촌토성과 파주 주월리 주거지에서도 출토되었다. 현재까지 자료로 보는 한 거치문 이외의 장식문양이 시문된 대용은 경기지역에 한정된다. 영산강유역에서는 거치문으로 장식문양을 단일화하였다.

순천 대곡리 주거지 출토 거치문토기 분석을 통해 거치문 토기는 엘리트 주거지에서 독점적으로 출토하고 독특한 기하학적 문양을 가지고 있으며, 다른 토기와 달리 매우 크다는 점으로 볼 때 새로운 정치적 엘리트의 사회적 권위를 상징화하는 표식물, 즉 정치적 권위의 상징적 표상으로 보기도 하는데(金承玉, 1997), 마한이라는 광역적 단위 내의 지역집단 안에서 계층화가 발생하고 그것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되었다는 점에는 동감하나 영산강유역에서의 옹관고분의 발생과 관련하여서는 거치문이라는 상징적 문양이 계승된 사회적, 정치적 맥락이 다를 수 있으며, 4세기에 옹관이 일반적인 매장주체시설로 보편화 된 이후에도 모든 옹관에서 거치문이 나타나고, 다른 유물에 나타나지 않는 점은 지역집단 내 계층화 표현보다는 한 단계 위의 역할, 즉 영산강유역 전체를 하나의 단위로 인식하게 하는 역할을 수행하였을 것이라는 점이 주목된다.

대용의 주요한 형태적 특징 중의 하나로 저부 돌기가 있다. 이것을 성형과 관련된 흔적, 즉 성형시 옹 전체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한 것으로 보는 경우도 있지만 대용의 성형과정에 대해 알려진 예가 없어 아직 불확실하다. 그런데 주거지 출토 대용의 경우 주거지 바닥이나 수혈에 바로 세워놓았던 흔적이 보이므로 세우는 데는 일정한 구덩이가 필요하였을 것이며, 돌기는 이때 용기 고정이라는 부가적 용도로 쓰였을 것이다. 이러한 돌기가 전형적인 U자형 옹관에서 음각침선으로 변하는데 초기 옹관에 나타나는 돌기의 흔적기관인 것으로 판단된다.

토기질은 회색 경질²⁾로 모래 등 사립이 다량으로 포함되어 있으며 기벽이 두껍다.

<표 1> 주요 대용 및 옹관 주요 속성

유적명	출토유구	옹(관)									공 반 유 물	비고
		구 경	높 이	최 대 경	문 양	동 체 형	구 경 부	어 깨 돌 기	저 부 돌 기	거 치 문		
풍납토성	가-2호 주거지	56	87	66	격 장	1	×	0	×	직구단경호, 시루, 회색무문양 광구단경호, 원저호, 타날문심발형토기	부뚜막 서편바다	
	나-1호 주거지	54.5	76	52.5	격 장	1	×	0	×			
	가-수혈 16호					3		0	0			
	가S5W12피트					3			0	중국회유도기		

2) 손톱으로 긁었을 경우 긁히지 않을 정도로 단단하나 기벽의 태도가 치밀하지 못하고 속심은 손에 묻어날 정도로 약한 경우가 있다. 일반적으로 말하는 연결과 석기질의 중간 정도 굳기로 표면에 태도에 포함된 규소질이 녹아 생긴 윤이나 막, 재에서 생긴 자연유가 형성되지 않은 단계이다.

유적명	출토유구	용(관)									공 반 유 물	비고
		구 경	높 이	최 대 경	문 양	동 체 형	구 경 부	어 깨 돌 기	저 부 돌 기	거 치 문		
몽촌토성							1		0	0		파편
파주 주월리	96-7호 주거지	46	71.5		격	장	1	×	×	×	회청색경질무문직구호, 흑회색경질단경호, 회색직구호, 회색평저직구호, 적갈색시루, 회색경질고배, 철검	8개체, 주거지
					격	장				×		
		49	72.7		격	장	3	×	0	×		
		68.2	87.5		격	난	3	×	0	×		
		49.6	93.3		격	장	1	×	×	×		
		52.6	98.1		격	장	1	×	×	×		
		50.5			격		1			0		
53	79.7		격	장	1	×	×	0				
청원 송대리	42호주구토광묘	48.6	60.6	45	?	난	2	×	×	0	원저단경호, 발, 철촉, 철모, 물미, 도자, 철부, 철착, 철검, 구슬	
서천 오석리	94-6호용관	59	82	60.2	격	난	2	×	0	0		
공주 하봉리	8호주구묘 주구	66.9	86.5	60.9	격	난	2	0	0	0	원저단경호, 철검, 철준	
서천 한성리	적석유구	85	110	73	격	난	2	0	0	0		
익산 울촌리	5호분구묘	98	113	98	격	난	3	×	0	0		
		95	96	84	격	난	3	0	0	0		
군산 산월리	가지구 용관	81.6	85.2	73	격	난	3	×	?	0		단독장
		75.8	101	69			2					
남원 세전리	1호 주거지	99	91	97	격	난	3	×	0	0	심발형토기, 장관형토기, 직구난형호, 원저단경호, 귀매토기, 외반구연경질무문토기	
고창 송룡리	단독묘	115	99	100	격	난	3	×	0	0	회청색도질원저단경호	
		97	?	95.5	격	난	3	×	0	0		
고창 만동	8호주구묘	112	112	110	격	난	3	×	?	0	이중구연토기, 단경호, 철검	주구내
함평 성남리	단독묘	90.2	112		격	난	3	0	?	0	평저광구호, 팽이	
		93	98.2									
영암 선항리	단독묘	80	93		격	난	3	×	0	0		
나주 복암리3호	제20호용관	68	92.8	64	격	난	3	×	0	0	원저직구호	
	제21호용관	117	139.5	103.2	격	난	3	×	0	0	평저호	

유적명	출토유구	용(관)									공 반 유 물	비고
		구 경	높 이	최 대 경	문 양	동 체 형	구 경 부	어 깨 돌 기	저 부 돌 기	거 치 문		
나주 복암리1,2호 사이	주구 c무지	81.2	103		격	난	3	×	0	0		
나주 용호	1-2	104	75>	-	격	난	3	×	?	0		주구
	12-2	파	편		격		3	0		0		주체
	16 소	72.6	82>	68	격	난	3			0	평저호, 옥	주체
	17 대	90	80>	82	격	난	3	0		0		주구내
	17 소	88	76>	78	격	난	3	0		0	평저이중구연호	
	18 대	76.4	83.6	66.8	격	난	3	0		0		주체
	18 중	83.6	64.4	74.8	격	난	3	0		0		
	18 소	79.6	101	75.2	격	난	3		0	0		
함평 월야 순존	A-24-1	85.5	100		격	난	3	0	0	0	-	주구내
	A-38	82.5	96		격	난	3	-	-	0	-	주구내
	A-39-1 대	65.4	75		격	난	3	0	0	0	발형토기, 광구호, 구슬	분구隅
	A-39-3 대	88	95.2		격	난	3	0	?	0	구슬	분구隅
	A-39-3 소	80	97.5		격	난	3	0	0	0		"
함평 만가촌	3-2 용관	110	80>		격	난	3	×	?	0	구슬, 평저호, 철정	분구隅
		98	93>									
	12-4 용	73.5	81>		격	난	3	0	?	0	완, 원저호	분구隅
	12-7 용	92	95		격	난	3	0	?	0	심발, 원저호	주구내
92	95											
13-12 용				격	난	3	-	?	0	원저호	분구隅	
영암 금계리	7호주구묘2호용	90	108		격	난	3	0	?	0	원저단경호, 심발형토기	주구내
		92	95									
	1호용관	76	95		격	난	3	×	0	0	원저외반호 2	단독장
하남 미사리	한양대A13호주 거지	46.5	58	51.8	격	난	2	×	×	×	중도식토기	주거지
청주 송절동	93-B-4호목곽 묘	33.6	49	48.6	승	난	1	×	×	0	원저단경호, 뚜껑, 이중구연토기, 심발형토기, 삼각만입사두형철촉	
승주대곡리 도봉	3호주거지	26.8	34.7	33	격	난	1	0	×	0	심발형토기, 장관형토기, 직구난형호, 원저단경호, 귀패토기	
		28.6	38	35	격	난	1	0	×	0		
남원 두락리	단독묘	46	60	50	격	난	2	0	×	0	원저단경호, 발형토기	

- 구경부 : 1(외반하는 긴 목, 수평에 가깝게 외반된 구연), 2(길게 직립하는 경부, 수평으로 꺾인 구연), 3(외반하는 긴 목, 수평으로 외반된 구연 내면과 구순에 각이 짐. 1에 비해 두꺼움)
- 동 체 : 난(난형: 동장/동최대경 < 1.1), 장(장란형: 동장/동최대경 > 1.1)

크기는 형태가 완전한 옹관 및 옹형토기의 구경과 높이의 분포상태를 보면 구경 70cm, 높이 90cm 이상의 대형, 그 이하의 중형으로 구분된다. 합구식의 경우 대응을 기준으로 하였다.

영산강유역 제1형식 옹관의 발생배경과 관련하여, 주목되는 대형옹 및 옹관은 속성의 조합에 의해 몇 가지로 구분된다. 주요한 분류기준은 크기, 구경부 형태, 동체부 형태, 견부문양(거치문)저부 돌기의 조합 상태 등이다³⁾.

크기	구경부	동체부	문양돌기조합*	속성조합	대표적 예	비 고
중	1	장	3	II2	주월리	
	1	장	2		풍납동, 주월리	
	2	난	2	II1	송대리42, 주월리	
	2	난	1		하봉리, 오석리	
대	3	난	1	I	북암리3호21호옹관 나주 용호고분군 함평 월야고분군	영산강유역 제1형식옹관

* 거치문과 저부돌기가 조합(1), 이 중 하나만 있는 경우(2), 모두 없는 경우(3)

대형(I) 옹 및 옹관은 영산강유역 제1형식 옹관과 속성조합이 동일하다. 중형(II)에는 많은 변이가 보이는데, 크게 두 가지로 세분된다. II1은 영산강유역 제1형식 옹관과 형태는 거의 같으나 크기가 작고 구경부가 직립하며 거치문이나 돌기가 없는 것이다. II2는 장란형의 동체로 기벽이 얇으며 경부와 구연부가 구분되지만 I에 비해 구연부의 기운 정도가 약하고 세부적인 처리에 차이가 있다. 견부 문양에는 거치문 이외에 능형문, 원문 등 다양한 문양이 시문되며, 견부 문양과 저부 돌기를 모두 갖춘 경우는 없다. 지역적으로 경기도 일대에 주로 분포한다. 중형의 나머지는 그러한 속성조합을 이룬 예가 빈번하게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II의 변이로 파악한다. 풍납토성에서는 I, II형식이 모두 나타나는데, 경부와 동체부 경계의 문양은 없는 것에서 거치문, 능형으로 다양화되고 저부 돌기는 있는 것에서 없

3) 견부의 돌기도 주요한 속성이나 영산강유역 제1형 옹관에 주요 속성으로 정착하지는 못한다. 견부돌기가 있는 토기는 중서부지방 및 호남동부 지역 토기에서 보인다.

는 것으로 변하며 토기질은 연질에서 석기질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나 연질 및 경질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기형도 장란형에서 난형으로 변하는 경향이 층위상과 대체로 일치한다(국립문화재연구소, 2001b).

이외에 경부와 구연부가 구분없이 그대로 외반된 형태로 크기가 작은 소형의 옹 또는 옹형토기가 있는데, 전부 문양과 저부 돌기를 모두 갖춘 경우는 없다. 이 기형은 대형 옹관과는 별도로 일부 옹관으로 쓰인 것으로 보이나 여기서는 논외로 한다.

영산강유역에 최종적으로 정착한 기형(I)을 기준으로 보면 소형→대형, 장란형→난형, 전부 문양 및 저부 돌기의 통일화 및 조합화로 변화 경향을 상징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지역에 따른 변이와 주월리와 같이 같은 시기 유물조합에서도 변이가 관찰되므로 변화의 큰 방향만 상징한다.

2. 제1형식 옹형토기(옹관)의 지역적 분포

제1형식 옹관은 나주 북암리고분군 1, 2호분 사이⁴⁾·3호분·용호고분군, 高敞 송룡리, 영암 선황리·금계리, 咸平 禮德里 萬家村·월야 순촌, 무안 인평 등 호남지역에서 우선 그 예를 찾을 수 있다. 호남지역도 세부적으로는 영산강유역권과 고창 성남리 주구묘 등 서해안권인 호남서부권, 남원 細田里 1호 주거지, 순천 대곡리 등 호남 동부의 섬진·보성강유역권으로 세분할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형태의 옹관 또는 옹형토기는 한반도 중서부 지역에도 분포한다. 서울 風納土城, 하남 미사리, 파주 주월리 96-7호 주거지, 화성 당하리유적, 화성 운평리유적 등 서울·경기지방에서는 한강, 임진강유역을 중심으로 분포하고, 서부해안에서도 확인된다. 또 하나의 주요 분포권은 舒川 烏石里·堂丁里 주구묘, 서천 漢城里 적석유구, 益山 永登洞 周溝墓, 公州 下鳳里遺蹟의 8호 周溝土壙墓, 청주 송대리 梧倉 42호 주구묘, 대전 오정동유적, 익산 율촌리 5호분 등이 분포하는 금강유역권이다.

이와 같이 분포범위가 한강유역, 금강유역 및 중부 서해안, 호남지방 서해안지역 등 馬韓의 전역에 미치고 있어, 이후의 대형 전용 옹관 형식보다 분포범위가 훨씬 넓음을 알 수 있다(그림 1). 또한 지역에 따라 출토유구 및 맥락이 상이한 양상을 보여준다. 이 점은 후술한다.

4) 林永珍·趙鎭先·徐賢珠, 1999. 2, 6, 7호 옹관 및 주구 c무지에서 출토됨.



- 주거지
- ▲ 토광묘 부장
- ▲ 주구묘 주구부장
- 종속 매장시설
- 주구 매장
- 중심 매장 주체
- ★ 기타

1. 파주 주월리
2. 포천 자작리
3. 풍납토성
4. 몽촌토성
5. 하남 미사리
6. 화성 운평리
7. 화성 당하리
8. 이천 효양산
9. 홍성 신금성
10. 청원 송대리
11. 청주 송절동
12. 공주 하봉리
13. 대전 구성동
14. 대전 오정동
15. 서천 오석리
16. 서천 당정리
17. 서천 한성리
18. 익산 울촌리
19. 익산 영등동
20. 고창 송룡리
21. 고창 중월리
22. 고창 성남리 Ⅲ
23. 영광 원흥리 원당
24. 함평 예덕리 만가촌
25. 함평 월야 순촌
26. 광주 오룡동
27. 광주 쌍촌동
28. 함평 성남리
29. 니주 복암리
30. 무안 인평
31. 무안 양장리
32. 영암 선황리/금계리
33. 남원 두라리
34. 남원 세전리
35. 순천 대곡리
36. 니주 용호

<그림 1> 분석대상 대응 및 용관 분포 및 출토맥락

3. 출토유구·맥락, 용도

중서부 및 서남부 지방에서 출토되는 용(관)형태기는 출토유구와 유구내 출토위치가 몇 가지 다른 양상을 보인다. 이에 따라 그 쓰임새도 달랐던 것을 알 수 있다(그림 2).

① 주거지에서 출토된 경우

주거지에서 대용이 출토되는 것은 마한지역의 공통적 양상이지만 지역에 따라 출토 맥락은 다양하다. 지금까지 한강하류역 중심의 경기도 일대와 영산강유역, 섬진·보성강유역에서 주로 확인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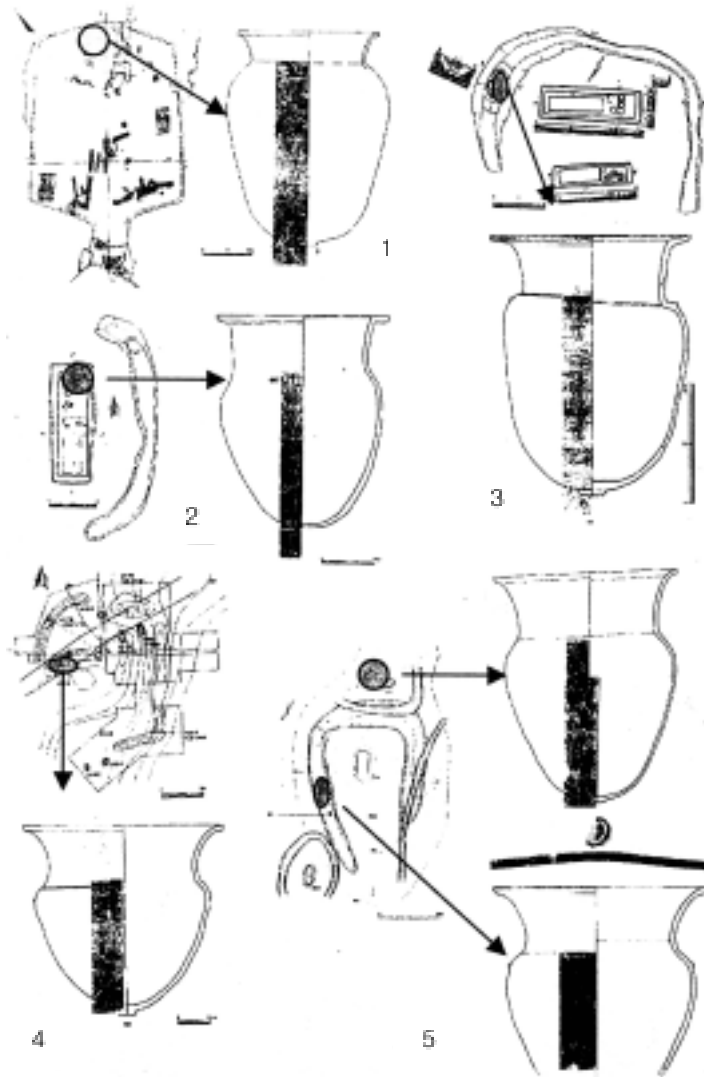
한강하류역, 임진·한탄강유역을 중심으로 한 경기지역의 육각형 주거지에서 대용은 부뚜막 주변에 몇 기가 배치되거나 한 주거지 내에 집중적으로 들여놓은 상태로 출토되기도 한다. 이 경우 주거지는 한강유역의 특징적인 형태인, 출입구가 달린 육각형 주거지이다. 소위 ‘풍납동식’주거지(신희권, 2001)의 발전과정상 정형화된 육각형을 보이며, 부뚜막식 노지를 설치한 주거지가 출현하는 단계와 시기적으로 겹친다. 이 시기는 백제가 국가로 성장하여 주변에 영향력을 확대하는 시기로 경질무문토기가 사라지는 대신 타날문토기와 회흑색무문양토기가 성행하고, 회청색경질토기가 등장하기 시작하는 시기(2세기 후엽~3세기 중엽)이다. 한강중상류역의 초기 육각형 주거지에서 이러한 대형용이 출토되지 않는 점은 시간상의 차이도 있지만 대형용을 비롯한 고고학적 양상이 마한의 제집단과 밀접히 연관되어 있기 때문이며, 백제는 중부 한반도의 이러한 제 집단의 문화적 바탕을 흡수하며 성장한 것으로 추정된다.

풍납토성에서 대용이 출토된 양상을 살펴보면 주거지 내부 부뚜막 주변에서 출토되고 내부에 탄화된 곡물이 들어 있는 경우(나-1호 주거지, 팔)도 있으며, 주거지 내부는 아니지만 대용을 세워두었던 흔적이 수혈로 남은 경우(가-11·12호 수혈)의 예로 보아 곡물의 저장과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몽촌토성에서도 주거지, 저장공 등에서 파편이 일부 출토되었다(박순발 1992).

파주 주월리 96-7호 주거지(장축 17.5m, 단축 10.8m)에서는 대형용 8개체가 주거지의 양장벽에 인접하여 약 2~3m의 등간격으로 각 4기씩 출토되었는데, 모두 주거지 바닥을 파고서 세워 놓았다. 토기 내부에서 콩과 조가 검출되었다(李仁淑·金圭相 1999).

포천 자작리유적(송만영, 2001; 宋滿榮 외, 2004)의 경우 육각형의 대형 집자리(전장 23.78m, 최대폭 13.35m) 내부에 설치된 부뚜막 좌우에 세워져 있는 상태로 3점 출토되었다. 용의 형태는 구순에 요철이 있고 장관형 동체에 저부 돌기가 없으며, 문양도 정면



1. 풍납토성 가-2호 주저지, 2. 청원 오창 42호 주구토광묘
3. 공주 하봉리 8호 주구묘, 4. 익산 율촌리 5호 분구묘
5. 나주 용호17·18호묘

<그림 2> 용형토기 출토맥락

하여 지우거나 격자문을 교차 타날하고 경질화되어 풍납토성 출토품보다는 늦은 것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출토 정황은 한강유역의 집자리에서 출토되는 이런 토기의 용도를 설명하는데 시사하는 점이 있다. 대형옹이 출토된 주거지는 대형의 육각형으로 일반 주거지와는 구별되는 특별한 위상을 지닌 최상위 계층의 것으로 추정된다(신희권, 2001; 송만영, 2001). 유적 내의 주거지 중 한정된 주거지에서 출토되고 파주 주월리 96-7호와 같이 한꺼번에 8개체가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일반 가구에 공통된 실생활 용기로는 보기 어렵다. 저장과 관련된 것은 확실하나 주요한 생계경제 자원인 씨앗의 공동저장, 즉 생산 및 생산물의 집단적, 공공적 통제를 유추할 수 있다. 그만큼 이 옹형토기에는 저장용기로서의 실용성 외에 재생산과 주요 농작물에 대한 독점, 통제를 표현할 상징성이 부가되었을 것이다. 즉 집단내 정치적 엘리트에 의한 통제의 표현 수단으로 사용되었을 것이다.

영산강유역에서 대형옹이 출토된 주거지로는 광주 쌍촌동(林永珍·徐賢珠, 1999)·오룡동(최성락 외, 1995), 무안 양장리유적(이영문 외, 1997)이 있다. 쌍촌동유적은 구릉 사면에 주거지가 군집한 취락유적으로 주거지는 방형계이다. 대옹은 대부분 화재로 폐기된 13기의 주거지에서 출토되었는데, 원형으로 원위치에서 출토된 것은 없다. 다만 노지 주변과 42호 처럼 별도로 마련된 壁龕에서 발견되는 경우와 11호처럼 밤이 담겨 있는 경우도 있어 용도를 저장과 관련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많은 편이 퇴적도에 섞여 있어 출토 주거지마다 대옹을 사용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어 취락 내에서 어느 정도의 가구에서 점유하였는지는 확실하지 않으나 최대한으로 잡아도 15% 정도이다. 거치문, 저부 들기, 동체의 격자문 타날 등의 공통점은 있으나 형태는 다양하다.

무안 양장리유적은 저습지가 확인되어 잘 알려진 유적으로 대옹은 구릉과 평지의 방형주거지에서 출토되었는데, 출토양상은 쌍촌동과 유사하게 인접한 주거지에 파편이 흩어져 있다. 양장리유적은 5세기까지 연속되는 양상을 보인다. 94-5, 96-11호 주거지에서 소토부와 노지에서 출토된 점도 쌍촌동과 유사하다.

섬진·보성강유역에서는 취락지인 순천 대곡리와 남원 세전리에서 확인되었다. 대곡리 도룡유적에 거치문이 시문된 옹은 '89-서울대 도룡 3호 주거지에서 2점 출토되었는데, 3호 주거지는 주거지군내에서 최대급에 속한다(최몽룡 외, 1990). 그런데 기형은 제1형 옹관과는 차이가 있으나 크기 및 거치문 등의 문양의 의미는 다른 지역의 옹형토기와 유사한 것으로 판단된다.

남원 세전리 1호 주거지에서 출토된 옹은 제1형 옹관과 동일하다. 공반유물은 도룡 3호 주거지와 기종구성이 거의 같은데, 경질무문토기가 공반된 점이 다르다(全北大學校博

物館, 1989). 섬진·보성강유역은 유물상으로 볼 때 여타 지역과 구별되는 동질성을 보여 주고 있다.

② 주거지는 아니지만 생활유적인 경우

풍납토성 경당지구 196호 유구는 완전히 조사되지 않아 정확한 성격을 알 수 없지만 다량의 西晉製 施釉陶器와 바로 세운 상태의 대옹이 출토되어 격납시설일 가능성이 높다. 시유도기 자체는 위세품을 담았던 저장용기로 판단하였다(권오영, 2001).

이외에도 화성 당하리유적(이선복 외, 2000), 홍성 신금성(이강승 외, 1994), 서천 한성리(국립부여박물관, 2000), 이천 효양산(호암미술관, 1995)에서 확인되었다.

화성 당하리유적은 점토채취, 소성 등 일련의 토기제작과정과 관련된 유구로 추정되는 구덩이, 집자리, 추정 저수지가 확인되었다. 회색계열의 외반구연 대옹은 51개체 확인되었다.

이 대옹과 관련된 유적의 연대는 토기의 분석을 통해 3세기 전반대로 추정하고 있다. 당하리유적은 3세기 전반대에 대옹을 제작, 배급하던 유적으로 판단된다.

홍성 신금성에서는 5호 목곽유구에서 파편이 출토되었는데, 목곽유구는 사방 4m 정도의 나무틀 밖을 개흙으로 충전한 특이한 구조이다. 유구의 성격이 불분명하고 출토정황도 용도를 추정하기 힘들다.

서천 한성리유적에서는 적석유구에서 대옹 1개체분이 들뜸과 퇴적도에서 흩어진 채로 발견되었다. 조사의 한계로 적석유구의 성격을 확실히 알 수 없으나 대옹의 출토맥락은 서천 당정리 주구묘와 유사하게 흩어진 채로 출토되어 제사와 관련된 것으로 추정된다.

③ 매장주체부의 부장공간에 매납된 경우

청주지역 토광묘에서 확인된다. 송대리 梧倉 유적 중 제1형 옹관과 형태적 속성이 거의 같은 것이 매장주체가 토광묘인 42호 주구묘에서 출토되었고, 이외에도 14-2, 21호 토광묘 부장공간에서 저부에 원형 돌기가 달린 대형 옹이 출토되었다(한국문화재보호재단, 1999).

인근의 청주 송절동 토광목곽묘에서도 부장공간에서 대옹이 출토되었는데 93-B-3-1, 4, 6-2호묘에서 출토된 대옹은 원저단경호 등의 부장토기와 공반되었는데, 거치문을 시문한 것 이외에는 형태와 문양 등에서 영산강유역 제1형식 옹관과는 차이가 있다(車勇杰·趙詳紀, 1995).

④ 주구묘의 주구 내 출토

토광(목관)묘를 매장주체부로 하며 주구를 돌린 묘제를 주구토광묘라고 하는데, 충청도

내륙과 해안 및 전라북도 등 중서부지방에서 집중적으로 조사되고 있다. 입지 및 주구의 형태에 따라 청당동형과 관창리형으로 나누기도 하는데, 기본적으로는 동일한 계통의 묘제로 볼 수 있다(성정용 2000). 옹관은 舒川 堂丁里(國立扶餘文化財研究所 1998), 益山 永登洞 周溝墓(崔完奎 외 2000), 公州 下鳳里遺蹟의 8호 周溝土墳墓 周溝내(서오선 1995), 高敞 城南里Ⅲ유적(崔完奎 2000)·中月里(원광대학교 마한·백제문화연구소 1984)·예지리(전주대학교박물관 2002)·만동(金建洙 외 2004), 영광 원흥리 원당(전남대학교박물관 1999)·군동 라지구(최성락 외 2001)에서 출토되었다.

서천 당정리 주구묘의 경우 2·3·6·15·18호에서 출토되었는데, 이들 주구묘는 당정리 주구묘군 중에서 중대형에 속한다. 출토 양상은 도랑 안에 파편으로 산재되어 있거나, 1개체가 출토된 경우도 허봉리 8호와 같이 저부와 동체 이상이 양분된 상태로 있는 등 매장시설로 보기는 어렵다. 분구 중에서 매장시설로 매납되어 있던 것이 주구로 흘러들었을 가능성도 출토 양상으로 볼 때 희박하다. 이 경우 의례와 관련된 葬制의 하나로 파악된다.

그런데 영광 원흥리 원당 군동과 고창 증월리·예지리·성남리 주구묘, 함평 월야 순춘고분군에서는 토광묘 주체의 臺狀部의 가장자리에 매장시설로 옹관이 매납되는 경우와 더불어 주구에서 출토되는 경우에도 합구식이나 3용식으로 정연하게 조합되고, 부장유물이 공반하는 것으로 보아 매장시설이었음을 알 수 있다. 이 경우 추가장 또는 陪葬의 성격이 강하다.

주구묘의 주구에서 출토되는 경우도 위와 같이 제의와 관련된 양상을 보이는 금강유역과 매장시설로 쓰이는 호남 서부지역의 양상으로 나뉜다⁵⁾.

⑤ 저분구묘의 주구 또는 臺狀部의 주변에 매장시설로 쓰인 경우

益山 栗村里(崔完奎, 2000), 고창 성남리, 영광 원흥리 원당, 함평 순춘고분군, 나주 용호고분군, 영암 금계리고분군(최성락 외, 2004) 등에서 확인되었다.

익산 율촌리고분군은 방형의 저분구묘로 주구가 설치되어 있으며, 매장시설이 여러 종류로 多葬, 복합묘의 특징을 보인다. 5호분의 경우 평면 방형으로 규모는 남북쪽 13m, 높이 1m이다. 매장시설은 대형옹관 1기, 소형 옹관 4기, 석관묘 3기가 조사되었다. 그 중 대용인 1호 옹관은 분구 서측의 墳丘中에서 확인되었다.

함평 월야 순춘고분군은 사다리꼴의 고분에 옹관이 매장된 것이 확인되어 옹관고분의 발생과 관련하여 중요한 유적으로 평가된다(박철원, 2000; 최성락 외, 2001). 46기의 주구묘가 확인되었는데, 평면 방형계와 사다리꼴의 형태로 나뉘며 방형계는 토광을 매장주체로 하

5) 주구에 옹관이 매장시설로 안치된 예로 금강유역권의 공주 장원리 1호 주구토광묘를 들 수 있다. 그러나 옹관은 여기서 논의하는 대형옹과는 다르다(柳基正 외, 2001).

고 옹관이 陪葬된다. A-39호에는 1형식 옹관이 매장되어 있다. 사다리꼴의 주구묘는 대소형이 있는데 소형에 옹관을 매장주체로 사용한 것(A-32호)이 확인되었다. 여기에서도 위에서 분류한 1형식 옹관이 매장주체부로 쓰인 것은 확인할 수 없으나, 옹관고분의 발생과 관련하여 토광묘 주체의 방형주구에서 옹관묘 주체의 사다리꼴 분형으로 넘어가는 과도기적인 특징을 잘 보여주는 유적으로 판단된다.

인접한 만기촌고분군에서도 긴사다리꼴고분이 14기 조사되었는데, 목관묘가 매장주체를 이루며 다장의 특징을 보이고 있다. 옹관은 1형식만 보이는데 주구(12-7 옹관), 분구내 가장자리(3-2, 12-4, 13-2)에서 확인되었다. 토광은 이 고분군이 존속하는 4세기대까지 존속하였다(임영진 외, 2004).

나주 공산면 용호고분군에서는 모두 사다리꼴의 저분구묘가 조사되었는데, 매장주체시설이 토광목관묘에서 옹관묘로 변화하고 있다. 1형식 옹관은 매장주체시설이 목관묘인 분구의 주구에 안치되다가(1-1, 1-2호, 17호) 나중에는 분구의 중심에 단독 매장시설로 자리 잡는다(김건수 외, 2003).

중심 매장시설이 토광묘이고 주구를 갖춘 저분구묘의 주구와 대상부의 가장자리에서 확인되는 1형식 옹관은 아직 종속적인 상태를 보여준다. 분구는 울촌리와 같이 방형도 있지만 영산강유역의 고창 성남리와 함평 월야·만기촌, 나주 용호에서는 방형계통의 주구묘가 사다리꼴로 변화, 정착하는 양상을 띠는 특징적 모습을 보인다. 중국에는 나주 용산고분군 12호 2차분구와 같이 여러 옹관이 중심 매장시설로 쓰이게 되는 30m 이상의 사다리꼴 분구가 나타나게 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와 같이 중서부 지방의 주구묘에서 발견되는 대응은 제사와 관련된 것으로 보이나 호남지방에 분포하는 주구묘에서는 주구에서 출토되더라도 매장시설로 쓰이면서 분구의 중심부로 이동해 가는 양상을 보여준다.

⑥ 중심 매장주체시설로 쓰인 경우

매장주체라고 하여도 분구 없이 단독으로 조영된 것과 저분구 또는 사다리꼴 주구묘의 중심 매장시설로 사용된 경우가 있는데 후자는 영산강유역에 나타난다.

단독장과 관련하여 영산강유역과는 멀리 떨어져 있으나 동일한 서해연안에 위치한 서천 오석리(94-3·94-6·95-1호)와 공주 하봉리(3·4호)에서 매장주체로 옹관이 확인되어 주목된다. 오석리의 경우 옹관묘는 (주구)토광묘와는 독립된 배치를 보인다. 출토 맥락이 명확하지는 않지만 주구형 구덩이 내부의 대지에서 확인되었다. 기형이 다른 95-1호 옹관묘에서 뚜껑 1점이 출토된 것을 제외하면 부장유물이 없어 단독의 주매장시설로 사용된 것인지는

불명확하지만, 출토 정황은 인근 주구묘의 주구 출토품과는 다른 양상이므로 매장시설이었음은 확실하다. 그런데 오석리유적의 (주구)토광묘 부장토기는 인근의 주구묘와는 다른 양상인 반면 영산강유역의 초기 전용옹관 출토품과 유사한 점도 주목된다. 즉 양이부호, 평저광구호, 평탄한 상면의 가장자리에 턱이 만들어진 뚜껑이 그런 경우인데, 이런 기종은 영산강유역 초기 옹관의 특징적 부장품이다. 옹관의 형태, 부장토기의 조합, 대옹을 매장주체로 사용한 점 등은 영산강유역과의 관련성을 시사한다고 생각한다. 어쨌든 옹형토기 중에서 옹관으로 사용된 것으로 추정되는 것 중에서 가장 북쪽에 위치한다. 하봉리 옹관은 합구식이거나 서로 다른 기종을 사용하였으며, 대옹도 영산강유역 제1형식 옹관보다는 소형이며, 거치문과 들기도 보이지 않는다.

전북 서해안 지역에서도 군산 산월리(곽장근 외, 2004), 김제 장산리유적과 같이 옹관이 매장주체부로 확인되는 경우가 있다(전북문화재연구원, 2003). 그러나 옹관묘가 한 지점의 중심 묘제로 자리 잡은 것은 아니고, 주구묘, 토광묘와 공존하지만 소수에 불과하다. 그리고 아직 분구의 흔적을 확인하기는 어렵다.

영산강유역에서 확인된 제1형 옹관의 경우도 고창 송룡리 옹관, 함평 성남리유적(최성락 외, 2001), 나주 복암리 1·2호분 사이 옹관묘와 같이 옹관만이 확인되어 일정한 규모의 분구 또는 봉토를 가지는지 아직 불명확한 경우가 있다. 하지만 나주 복암리 3호분 21호 옹관과 같이 명확하게 단독의 봉토를 가진 경우도 있으므로 중심적 매장주체가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제1형 옹관이 본격적인 분구인 사다리꼴(梯形)분구의 중심 매장시설로 사용된 예는 나주 용호고분군(김건수 외, 2003)에서 확인할 수 있다. 목관묘가 중심시설인 1차 분구 위에 확장된 2차분구의 12-2호 옹관, 2형식 옹관과 조합된 16호 옹관, 3옹식의 18호 옹관 등이 그것이다. 이것들은 토층과 중복관계로 볼 때 목관묘 중심의 분구묘와 주구에 매장된 1형 옹관보다 늦음을 알 수 있다.

이와같이 함평 월야, 만가촌에서는 긴 사다리꼴 주구묘에 옹관이 단독 또는 여러 기 매장되나 중심 주체는 되지 않고 있으나, 나주 지역에서는 단독 매장주체로 등장한다. 그러나 나주 공산 용호고분군, 복암리 1, 2호분 사이의 예와 같이 본격적인 분구의 축조와 더불어 옹관의 형식도 영산강유역의 특징적 옹관인 제2형식으로 바로 바뀐 것으로 판단된다. 제1형식 옹관이 아직 구지표에 가까운 바닥에서만 출토되고 있는 점은 분구 고대화의 과정이 이루어지기 이전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대옹의 출토 정황은 지역적인 분포와 어느 정도의 상관성이 인정된다.

대응이 주거지에서 출토되는 것은 전반적인 특징이나 파주 주월리와 풍납토성 등 경기도 일대의 유적에서는 주거지나 기타 유구에서만 출토되었고, 금강유역에서는 토광묘 부장, 주구묘 부장의 예가 압도적이다. 전북 서해안의 주구묘 및 영산강유역에서는 주구묘 주구내 매장, 저분구묘 대상부에 종속적으로 매장하는 것과 함께 단독으로 매장주체시설이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각 유적의 상대적 시간성 확보가 문제가 되겠지만 대응은 저장과 관련된 특수용기로 사용되다가 매장의례와 관련하여 상징적 기형으로서 의도적으로 매납, 폐기한 것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추정된다. 즉 일상용기에서 매장의례와 관련된 상징적 기형으로 사용되다가 분구내의 매장시설로 발전해 간 것으로 보인다. 전북지역의 고창 성남리, 익산 울촌리와 같은 주구묘 및 분구묘에서 토광묘와 함께 옹관묘가 분구 내에 포함되지만 이 지역에서도 목관이 주매장주체부로 안치되었고, 옹관은 중심이 아닌 대상부나 주구내에 종속적으로 안치되어 있을 뿐(최완규, 2000), 대형옹관이 중심적인 매장주체부가 되는 것은 영산강유역에서이다. 복암리 1·2호분 사이 2호 옹관 및 3호분의 제20, 21호 옹관, 나주 용호고분군 12-2호, 16호, 18호 옹관은 이러한 예에 속할 것이다.

이와 같이 마한지역에 공통적으로 분포하던 이러한 대형옹 및 이를 사용하던 문화가 영산강유역이라는 한정된 지역으로 협소해지며, 매장시설로 발전하는 현상을 살필 수 있다. 그런데 어깨의 들기 및 저부의 원형돌기를 가진 옹관묘는 마한 지역뿐만 아니라 영남지방의 원삼국시대 유적에서도 확인되고 있어 한반도 중남부지방의 한 시대적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영남지역 옹관은 거치문이 없고 동체부가 무문양이며, 형태가 다른 점이 구별된다.

1형식 옹관은 바로 2형식 옹관(국립문화재연구소, 2001a)⁶⁾으로 대체된 것으로 보인다. 영산강유역 초기 옹관고분인 함평 월야나 나주 복암리 선행분구에 1형식 옹관과 함께 2형식 옹관이 바로 나타나며(복암리 3호분 20호 옹관과 나주 용호고분군 16호 옹관 등), 군집을 이룬 1형식의 옹관고분을 확인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영암 옥야리, 만수리와 같이 1형식의 옹관이 보이지 않고 토광목곽묘와 제2형식 옹관이 분구묘에 나타는 것은 주구묘에서 비롯된 토광·옹관의 혼용전통이 이어진 것으로 보이며, 1형식 옹관은 함평, 나주 등 방형 또는 사다리꼴 주구묘에서 분구를 갖춘 옹관고분으로의 변화를 먼저 경험한 지역에서 짧은 기간 동안 국지적으로 쓰이다가 영산강유역의 보편적인 대형옹관인 제2형식이 등장한 후 소멸한 것으로 판단된다. 제1형식 옹관은 형태적 특징으로 볼 때 마한과 공간적 분포를 같이하고 있으며 영산강유역에서 묘제로 채택하여 곧바로 제2형식의 옹관으로 새롭게 창조,

6) 난형의 동체, 외반된 구경부, 구순의 사면처리, 저부의 원형돌기가 조합된 형식으로 구경부의 형태가 제1형식과 확실히 구분된다.

확대발전시킨 것으로 추정된다.

4. 연대검토

대용이 출현한 시점은 기본적으로 경질무문토기가 사라지고 회청색경질토기가 등장하기 이전의 단계에 해당한다.

경질무문토기가 공반된 하남 미사리 한양대 A-1·10호 주거지 출토 대용은 아직 거치문과 저부 들기 등의 속성이 나타나지 않는다. A-1호 출토 방제경과 주거지의 구조로 볼 때 2세기에 해당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裴基同·尹又竣, 1994). 이에 비해 박순발은 방제경의 비교분석을 통해 A-1호 주거지 출토 토기의 상한연대가 후한 말기 이전으로 소급될 수 없는 200년경을 전후한 시점으로 보고 있다(박순발, 2003).

풍납토성 나-2호 주거지에서는 경질무문토기와 유사한 토기질을 보이는 타날문 적갈색연질 심발형토기를 비롯하여 회색 심발형토기, 황갈색연질 시루, 회색연질 타날문 단경호와 새로운 기술 도입과 관련된 회색 무문양의 뚜껑, 광구단경호 및 회색의 경질에 가까운 직구호 등이 공반되었다. 즉 경질무문토기가 사라지고 회색의 무문양토기와 타날문토기가 본격적으로 제작되기 시작하는 단계로 본격적인 백제양식토기가 출현하기 직전 단계(원삼국시대 후기 3세기대, 朴淳發, 1989)이다. 풍납토성 발굴지는 나-2호 주거지 단계를 2세기 후반으로 판단하고 있으나(신희권, 2001) 편년의 근거에 대한 논의가 좀 더 필요한 상황이다(박순발, 2003). 회색무문양의 평저호는 제1형식 옹관인 나주 복암리 3호분 21호 옹관, 나주 옹호고분군 등 영산강유역에서도 출토되었다.

풍납토성 가-2, 나-1호 주거지 출토 대용은 거치문이 시문되지 않았으며, 기형, 기벽 두께 등에서도 영산강유역 제1형식 옹관과는 약간 차이가 있다. 그런데 같은 풍납토성에서 이들 주거지보다 층위상으로 같거나 늦은 유구(가-수혈16호 등)에서 출토된 옹형토기 중 일부는 제1형식 옹관과 동일하다(국립문화재연구소, 2001b). 그리고 상층(3, 4층)에서 출토된 대용은 동체가 무문양이고 경부와 동부 경계의 문양이 능형문이 많아지며 석기질화한다. 이와 같은 대용의 기형의 변화는 시간의 흐름과 관련이 있다. 대용이 석기질화, 무문화되고, 거치문이 소멸하는 특징을 보이는 것은 고배, 삼족기 등 본격적인 백제토기의 성립과 서진대의 중국 도자기가 출현하는 3세기 후반 이후로 추정된다⁷⁾.

7) 보고서에서 3층으로 분류한 것 가운데 많은 것이 퇴적도에 포함된 것이어서 반드시 2층보다 늦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유구로서 3층에 포함된 것과는 구별되어야 한다. 하층의 유구가 매립되면서 퇴적된 것이기 때문에 3층의 구조물이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매립이 되어 3층보다는 2층과 관련된 것으로 봐야 한다.

파주 주월리 96-7호 주거지 출토 토기도 풍납토성 나-2호 주거지 출토품과 기종 구성, 기술 유형이 유사하다. 즉 회색경질의 타날문토기, 회색연질 무문양토기, 적갈색연질 타날문토기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다만 경질화 정도와 무개고배 등의 새로운 기종 출현 등으로 볼 때 3세기 후반~4세기 초엽경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이와 동일한 대용이 풍납토성 경당지구 101호 및 196호 유구에서 출토되었는데, 이곳에서 서진 회유도기가 공반되는 점으로도 뒷받침된다(박순발, 2003)

풍납토성 경당지구 196호 유구에서는 중국 西晋製의 시유도기와 대용이 공반되어 절대연대 추정에 도움이 된다. 시유도기는 중국에서 제작·사용된 시점과 지역이 매우 제한적이었는데, 3세기 후반에 절강·강소 일대에서 유행한 것이다(권오영, 2001·2002)⁸⁾. 대용이 백제 중앙정부에서도 중요한 기형으로 지속적으로 채용된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양상은 백제의 영역에 포함된 지역에서도 살필 수 있다. 홍성 신금성 5호 목곽유구에서 출토된 대용에는 회청색경질도 포함되어 있어 백제의 거점 확보식 영역확장과 관련된 유적에서 기존의 대용이 용도 변경 없이 지속된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포천 자작리의 초대형 육각형 주거지에서도 저장용기로 사용되었는데, 공반된 기대 및 1호 주거지 출토의 동진제 청자편으로 보아 4세기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사용된 것을 알 수 있다. 즉 백제의 정치적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는 지역에서는 4세기대까지 큰 형태적인 변화 없이 저장이라는 용도가 지속된 것으로 보인다.

이상과 같이 한강유역에서는 3세기 중엽 이전에 영산강유역의 제1형 옹관과 비교할 수 있는 대용이 선행 양식으로부터 발전하다 3세기 후반 백제토기의 본격적인 성립과 함께 새로운 양식과 기술이 가미되며 변화되었으나, 기본적인 용도는 변화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주구묘는 미호천, 금강하류역, 전북 서해안지역에서 집중적으로 조사되었는데, 주구의 형태에 따라 다른 이름을 붙이기도 하지만 묘제 전통은 동일한 것으로 보인다. 아직 등장시점에 대한 논의는 활발하지 못하지만 한성백제가 국가체제를 성립하기 직전인 3세기대에 활발히 조영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성정용, 2000). 그 중에서도 3세기 후반에 집중한다.

익산 율촌리 분구묘는 주구묘 전통에 분구를 갖추었으며, 複合多葬의 양상을 보이는 것으로 영산강유역 옹관고분의 성립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다. 5호분 1호 옹관은 영산강유역 제1형식 옹관과 동일하다. 율촌리에서 출토된 유물은 회색무문양토기와 황갈색의 원저단경호, 심발형토기 등으로 중서부 지방 주구묘의 전통을 바로 있고 있다. 연질의 토기는 기종 구성 및 형태적 특징이 중서부지방 주구묘와 이어지며 분구의 조성이라는 새로운 요소가 추가된 것을 고려할 때 3세기 후반의 연대를 부여할 수 있을 것이다.

8) 공반된 대용의 속성은 보고서가 발간되지 않아 자세히 알 수 없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영산강유역 제1형 옹관은 다른 백제화된 회청색경질 대용이 일반적이다.

영산강유역의 광주 쌍촌동유적에서 대옹과 공반되는 토기는 대부분이 연질이며, 회청색경질토기는 얼마 되지 않는다. 공반기종으로는 발형토기, 직구호, 원저단경호, 주구토기, 장관형토기, 시루, 이중구연호가 있는데 특히 이중구연호는 표지적 유물이다. 보고자는 대옹 출토 주거지의 연대를 3세기 중엽으로 판단하였는데 무리가 없다고 본다.

영산강유역에서는 경질무문토기가 발견되지 않고 있다(김승욱 2000:34). 남원 세전리와 해남 군곡리 등 동부산악지대와 남해안 일대에서는 출토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영산강유역은 인접지역과 애초부터 문화적 이질성을 어느 정도 지니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 점은 옹관고분의 발생과 어떤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짐작되나 추후 검토가 필요하다.

1형식 옹관이 매장주체시설이 된 나주 용호고분군 12호 2차분구는 매장주체시설이 목관묘인 1차분구를 확장한 것인데, 목관묘에서 출토된 원저단경호는 천안 청당동 19호묘 등과 비교할 때 3세기 전반대로 편년되므로(김건수 외, 2003) 이보다는 늦은 것으로 판단된다.

이외에도 나주 용호, 함평 만기촌월야 순촌고분군과 같이 주구묘에서 옹관묘로의 변이과정을 잘 보여주는 유적에서는 원저단경호, 광구평저호, 이중구연토기, 평저직구호, 심발 등이 주요 기종으로 나타나는데, 지금까지의 연구결과로는 대개 3세기 중엽 이후로 편년되며, 늦어도 표면 암회청색, 속심 암적색의 단경호나 경배 등이 등장하는 시점 이전으로 판단된다.

공반유물에 대한 검토가 좀 더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하겠지만 여기서는 위의 내용을 바탕으로 대략적인 변화경향만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을 것이다. 하남 미사리, 서울 풍납토성, 화성 마하리, 순천 대곡리와 같이 2세기 후엽~3세기 전반에는 대형 옹이 출현한다. 3세기 중엽에 이르러 중서부의 주구묘와 저분구묘의 매장시설과 관련을 맺으며, 3세기 후엽에는 영산강유역을 중심으로 이 제1형 옹관에서 발전한 전형적인 옹관고분(제2형)이 성립한다. 백제의 직접적 통제권내에 편입된 지역에서도 대옹은 지속적으로 사용되어 회청색경질화 단계에까지 이르나 용도의 전용은 이루어지지 않는다.

III. 옹관고분 발생 배경

이상에서 다룬 대형 옹 및 옹관은 공간적으로 경기, 충청, 전라지역에 고르게 분포하여 마한의 공통 문화요소로 볼 수 있다. 그런데 마한이 최상위 정치체(목지국)를 정점으로 어느 정도 정치적 통합을 이루고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명확하지 않다. 고고학적 자료로 본다면 목지국이 다른 政治體를 統轄하였다는 증거는 아직 부족하다. 즉 백제나 신라와 같

은 국가 단계의 정치체가 위세품을 지역단위 정치체에 賜與하여 정치적 주종의 관계를 맺고자한 것과 같은 적극적인 증거는 보이지 않는다. 그런 점에서 마한의 제 집단은 지역별로 대등한 정치체를 유지하고 있었다고 판단된다. 그런데 지역별로는 세부적인 차이가 있지만 변·진한과는 상대적으로 구별되는 물질문화의 동질성을 보여주므로 그 물질문화 자체의 동질성을 유발한 문화 담당자의 정신, 생활상의 동질성이 있을 것이고, 그것은 마한을 전체적으로 묶어주는 종족적 정체성과 관련이 있었을 것이다. 그런데 단순히 물질문화의 공간적 변이가 관찰된다고 하여 宗族性을 설정하는 것은 선부르며, 특정 사회집단에 속한다는 자의식(self-conscious)을 강하게 가졌다는 것을 고고학적 자료로 밝히지 못한다면 특정 집단의 정체성의 표현이 곧 종족성(ethnicity)이라고 하기는 어렵다(Shennan, 1989:14). 이런 점에서 마한 諸集團은 백제의 팽창이라는 역사적 상황이 전개되기 전까지 단지 비슷한 자연환경과 사회적, 기술적 배경을 공유하는 혈족집단의 연합체였을 가능성이 높아 종족성을 대내외적으로 표현할 필요가 있었는지는 의문이다. 대형옹관고분의 발생은 이런 느슨한 종족성이 의도적으로 통합되어 강하게 표현된 산물이며, 그 배경은 백제의 팽창에 따른 집단 정체성에 대한 자각 및 위기감에 따른 통합이데올로기가 필요해진 상황일 것이다. 즉 대형 옹관은 정체성 구별의 상징적 양식으로 사용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대형옹과 옹관에서 나타나는 특징적인 속성과 쓰임새, 분포를 고려하면 그것을 사용한 집단이 무엇인가를 의도한 행위의 표현으로 볼 수 있으며, 그것은 분명한 情報傳達의 양식으로 나타난다. 양식은 어떤 일을 행하는 방식이자 여러 대안 가운데 목적에 맞게 특정한 것을 선택함으로써 나타난다. 학습을 통해 다음 세대로 전달되며(문화적응), 전파를 통해 사회단위들 사이에 전달(문화변용)된다는 수동적 의미 이상의 것으로 인간의 문화적 생활에서 적극적 역할을 하는 능동적 성격을 가진다고 볼 수 있다. 즉 특정한 역사적 맥락에서 어떤 사회집단의 변천과정을 대외적으로 표출하고자 한 행위에 나타난 양식으로 살펴볼 수 있지 않을까한다.

집단 통합, 유대 및 정체성에 관한 분명한 메시지를 상징적으로 기호화된 정보로 다양한 타깃(target)집단에 알리는 수단으로써 일정한 종류의 물질문화가 표상적 양식(emblemic style)으로 투사되었다고 생각된다. 이런 능동적이고 상징적인 양식은 가시적이며, 다양한 맥락에서 자주 사용되며, 복합사회집단의 맥락에서 사용되고, 수명이 길고 제한된 유물에 부여된다. 표상적 양식은 사회적 상호작용을 용이하게 하나, 그 상호작용의 정도가 아니라 집단이나 경계가 존재한다는 정보를 전달한다. 즉 양식 연구를 통해 추구하는 것은 집단 자체가 아니라 집단이 변화과정으로서 동원되거나 다른 사회문화적 현상들이 나타나게 되는 맥락이다(Wobst, 1977; Wiessner, 1983; Conkey, 1989; Carr 1995). 물론 물질문화의 변이로 나타나는 양식에는 이러한 적극적이고 상징적인 것도 있겠지만 생계경제와 관계되는 많은

것이 수동적으로 표현될 수도 있을 것이라는 점(Sackett, 1985)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며, 그러한 양식을 창출한 집단의 사회적, 역사적 상황에 따라 상당히 달라질 수 있을 것이다.

대용 및 옹관이 주거지의 경우 취락지의 모든 주거지에서 출토되는 것이 아니라 한정된 수의 대규모 주거지에서만 출토되는 점은 이러한 옹형토기의 점유에 차별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생산물의 통제, 잉여 식량의 독점을 추론할 수 있으며, 주구묘의 경우에도 이러한 분포양상은 동일하다. 또한 무덤의 매장시설이 되는 점은 그 무덤 자체가 당시의 수장층의 무덤이라는 점과 관련하여 역시 제한된 접근을 시사한다.

그런데 대용 및 옹관은 이러한 상징성만을 표현하는 비실용기가 아니라 실질적인 용도(곡물저장, 무덤 매장주체부)에 상징성을 부가한 것이다.

다른 토기에 잘 보이지 않는 거치문이 대용에만 일관되게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점에서 위에 논의한 능동적 역할의 스타일에 부합한다. 독특한 옹 및 옹관은 출토유구, 출토 맥락 및 형태적 속성으로 볼 때 백제에 의해 정치권력이 집중화되지 않은 단계에 지역단위 집단(정치체)의 상위계층(수장층)을 상징하는 역할 즉, 집단 내에서 계층을 구분하고자 한 기능과 함께 느슨하지만 지역단위 집단을 이어주는 범마한적 동맹관계(*affinity*)를 표현하는 수단으로 사용된 것으로 추정된다. 상징적 스타일로서의 대용은 지역단위 집단 내 하위 구성원을 타깃 그룹으로 함과 동시에 마한을 하나로 인식하게 하는 중복적 기능을 가진다. 즉 마한내 여러 지역단위 집단의 종족적 정체성을 표현하는 것은 아니었다.

백제의 팽창과 함께 기존의 마한 세력이 위협을 느끼면서 마한 영역에서 널리 사용되던 상징적 연결 매개체를 상징화시켜 정치적 통합에 종족적 정체성을 이용하였을 것이다. 영산강유역이라는 한정된 지역에서 더 강하게 이런 상징행위가 이루어져 다양한 용도를 가진 대용이 형태적으로 정형화되고 크기가 커지면서 옹관고분으로 발전하는 것은 이런 과정의 표현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과정에서 한반도 서남부 지역에서 단위 지역별로는 차이가 약간씩 있지만 광역적으로는 동질적인 물질문화가 특정 정치체(백제)의 팽창이라는 변화에 따라 좀 더 큰 단위(백제, 영산강유역집단)로 물질문화가 양분화되고, 그 내부의 통합력은 커져 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대형옹관고분이라는 고고학적 문화는 단순히 종족적 정체성을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정치적 과정을 통해 나타난 복합적인 산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옹관고분의 발생을 정치적 상징성 이외의 다른 요인으로 설명하는 것이 가능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 점과 관련하여 주목되는 것이 영산강유역의 지형 및 지질이다. 대표적 옹관고분이 입지한 나주 반남, 동강, 공산, 다시와 함평의 월야, 영암 시종면 일대는 영산강 및 그 지류에 인접한 곳이다. 즉 제4기 충적층과 그 주변의 낮은 구릉지대이다. 충적층 주변의 저구릉은 백악기에 형성된 불국사 화강암으로 풍화에 대한 저항이 가장 약해 지금도 거의 돌이

보이지 않으며 받으로 경작되고 있다(장보웅, 1997). 말하자면 옹관고분이 입지한 곳은 들을 구하기 어려운 환경 조건이다. 이와 관련하여 주목되는 것은 지식묘의 분포이다. 지식묘는 대부분 산록의 말단 구릉이나 그 주변 평지에 위치해 옹관고분과는 입지를 달리한다.

또한 반남면에서는 거의 지식묘가 확인되고 있지 않다(최성락 외, 1999). 즉 옹관고분의 등장과정에서 환경적 조건-들의 부족은 대형옹관의 발생과 연관이 있다. 최소한 성행과는 관련이 많다. 그러나 이러한 조건을 갖춘 곳이 이곳만이 아니고 대형옹관 등장 이후 토광묘도 조영되므로 반드시 환경요인이 충분조건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대형옹관은 위에서 살펴본 대로 이러한 환경적 조건과 함께 마한의 정체성을 표현하고자한 영산강유역 지배집단의 정치, 문화적 의지의 표현이 반영된 상징적 스타일일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대옹의 발생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백제의 중심 지배세력도 한강유역에 정착하여 세력을 통합하는 과정에서는 기존의 주거양식과 함께 이러한 옹의 역할을 수용하였다. 즉 토착집단과의 융화에 중점을 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국가체제를 성립한 이후로는 대옹은 단순 실용기로 전환되고, 새로운 위세품-흑색마연토기, 환두대도, 중국 청자 등을 지배층의 양식으로 삼아 외부 집단으로 확산시켰다. 그런데 이러한 백제 중심 정치세력의 확산에 대한 지역 집단의 반응이 상이하여 중부지방은 백제화가 순차적으로 이루어지나 영산강유역은 지역 정치체의 강화로 나타난다. 이 점은 옹관고분 성립 이후의 묘제의 변화는 중서부 지방의 경우 토광묘 일색이나 영산강유역의 경우 토광묘와 옹관묘의 혼용기를 거쳐 옹관전용으로 나아가는 점과 관련 있다. 그런데 옹관고분 성립기에 영산강유역에서 토광묘가 혼용되고, 중서부지방과 관련된 유물이 나타나는 것은 정치적 경쟁, 대립이 모든 문화적 산물에 미치지지는 않았으며, 좀 더 새로운 변화는 4세기 중엽 이후 전형적인 U자형 옹관이 성립하는 것과 관계가 있다. 이 때도 역시 변화의 중요한 요인은 백제의 본격적 영역 확장이다(국립문화재연구소, 2001a:444).

IV. 결 론

2세기 후반 이후 凡馬韓적으로 사용되던 대형 옹형토기는 백제가 우월적 정치체로서 성장에 따라 점차적으로 범위를 좁혀가며 용도가 바뀌는데, 3세기 후반 이후 영산강유역에서 저분구묘의 중심 매장시설로 기능을 전용하면서 옹관고분이 등장하게 된다. 옹관의 형태와 양식이 통일되면서 백제와 구별되는 상징적 스타일로 강화, 사용된 것으로 추정된다. 즉 마한을 구성한 대

등한 정치체들의 공통적 상징이 백제와 구별되는 영산강유역이라는 광역적인 집단의 상징으로 바뀐다. 이러한 과정은 백제와 정치적으로 구별하고 맞서야 하는 대내외적 요구를 충족시키는데, 필요한 영산강유역 집단의 결집을 위한 통합 이데올로기의 반영이라고 판단된다.

참고문헌

- 곽장근·조인진, 2004, 『군산 산월리 유적』, 군산대학교박물관.
- 국립문화재연구소, 2001a, 『羅州 伏岩里 3號墳』.
- 국립문화재연구소, 2001b, 『風納土城 I』.
- 國立扶餘文化財研究所, 1998, 『堂丁里』.
- 국립부여박물관, 2000, 『舒川 漢城里』.
- 권오영, 2001, 「풍납토성 경당지구 발굴조사의 성과」, 『風納土城의 發掘과 그 成果』, 한밭대학교 향토문화연구소.
- 권오영, 2002, 「풍납토성 출토 외래유물에 대한 검토」, 『백제연구』 제36집, 충남대학교 백제연구소.
- 金建洙 외, 2003, 『羅州 龍虎古墳群』, 湖南文化財研究院.
- 金建洙 외, 2004, 『高敞 萬洞遺蹟』, 湖南文化財研究院.
- 金承玉, 1997, 「鋸齒文土器: 정치적 권위의 象徴的 表象」, 『韓國考古學報』 36輯, 韓國考古學會.
- 朴淳發, 1989, 「漢江流域 原三國時代의 土器의 樣相과 變遷」, 『韓國考古學報』 23집.
- 박순발, 1992, 「백제토기의 형성과정-한강유역을 중심으로」, 『백제연구』 제23집, 충남대학교 백제연구소.
- 박순발, 2003, 「한성기 백제 도성의 문제- 풍납토성과 몽촌토성의 축조 시기 비정을 중심으로」, 『은조와 백제 초기』, 제1회 백제문화 심포지움-한국고대사학회 2003년 추계학술회의.
- 박철원, 2000, 「함평 월야 문화마을 조성지역내 발굴조사」, 『三韓의 마을과 무덤』, 제9회 영남고고학회 학술발표회.
- 裴基同·尹又竣, 1994, 「漢陽大學校發掘調査團 調査報告(1992년도)」 『漢沙里』, 漢沙里先史遺蹟發掘調査團.
- 徐五善, 1996, 「대전 오정동출토 일괄유물 - 국립공주박물관 1979년도 신고품」, 『大田 梧

- 井洞-大禾洞地區 文化遺蹟 地表調查 報告書, 大田廣域市郷土史料館.
- 成洛俊, 1983, 「榮山江流域의 甕棺墓研究」, 『百濟文化』 제15집, 公州師範大學 百濟文化研究所.
- 서성훈·성낙준, 1986, 『영암 내동리 초분골고분』, 국립광주박물관.
- 서오선, 1995, 『하봉리 I』, 국립광주박물관.
- 成正鏞, 2000, 『中西部 馬韓地域의 百濟領域化過程 研究』,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송만영, 2001, 「포천 자작리유적 발굴조사 개요」, 『고고학부 발표자료집』 제44회 전국역사학대회.
- 宋滿榮·李憲載·李笑熙·權純珍, 2004, 『抱川 自作里遺蹟 I』, 京畿道博物館.
- 신희권, 2001, 「한강유역 1~3세기 주거지연구-‘풍납동식주거지’의 형성과정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圓光大學校 馬韓百濟文化研究所, 1984, 『高敞中月里文化遺蹟調查報告書』.
- 李康承·朴淳發·成正鏞, 1994, 『神衿城』, 忠南大學校博物館.
- 李南奭, 1996, 『烏石里遺蹟』 公州大學校博物館.
- 李鮮馥·金成南, 2000, 『華城 堂下里 I 遺蹟』, 승실대학교박물관·서울대학교박물관.
- 이소희·김기태, 2000, 「고고유적」 『도서해안지역 종합학술조사 I』 경기도박물관.
- 李榮文·李正鏞·李映澈, 1997, 『務安 良將里 遺蹟』 목포대학교박물관.
- 李仁淑·金圭相, 1999, 『坡州 舟月里 遺蹟-’96’97京畿道博物館 調査地域』 京畿道博物館.
- 李正鏞, 1996, 「榮山江流域 甕棺古墳의 分類와 變遷過程」, 『韓國上古史學報』 제22호, 韓國上古史學會.
- 林永珍, 1997, 「榮山江流域 異形墳丘 小考」, 『湖南考古學報』 5집, p. 23.
- 林永珍·趙鎮先·徐賢珠, 1999, 『伏岩里古墳群』, 全南大學校博物館羅州市.
- 林永珍·徐賢珠, 1999, 『光州 雙村洞 住居址』, 全南大學校博物館.
- 장보웅, 1997, 「자연지리적 환경」, 『榮山江流域史研究』, 韓國郷土史研究全國協議會.
- 전남대학교박물관 외, 1999, 「서해안고속도로(무안-영광간)건설공사구간내 발굴조사개요」.
- 임영진 외, 2004, 『함평 예덕리 만가촌고분군』, 전남대학교박물관.
- 全北大學校博物館, 1989, 『細田里 發掘調査報告書 圖面·圖版 I』.
- 전북문화재연구원, 2003, 『전북지역 백제문화유산』.
- 全榮來, 1973, 「全北地方出土 甕棺墓 二例」, 『全北遺蹟調査報告』 第1輯, 全羅北道博物館.
- 全榮來, 1975, 「高敞 松龍里 甕棺墓」, 『全北遺蹟調査報告』 第5輯, 全羅北道博物館.
- 車勇杰·趙詳紀, 1995, 『淸州 松節洞 古墳群 發掘調査報告書-1993年度 發掘調査』, 忠北大學校博物館.
- 崔夢龍·李根旭·金庚澤, 1990, 「大谷里 도롱 住居址」, 『住岩댐 水沒地域文化遺蹟發掘調査報

- 告書(舊石器住居址)』, 全南大學校博物館.
- 최성락·박철원·최미숙, 2001, 『함평 월야 순춘유적』, 목포대학교박물관.
- 최성락·이영철·한옥민, 1999, 『무안 인평 고분군-학산구산리고분군』, 목포대학교박물관.
- 최성락·이영문·이현중·김건수, 1999, 『고고유적』, 『나주시의 문화유적』, 목포대학교박물관.
- 최성락·이정호·이영철, 1995, 『광주오룡동유적』, 목포대학교박물관.
- 최성락·이영철·한옥민·김영희, 2001, 『영광 군동 유적-라지구 주거지·분묘』, 서해안고속도로 건설구간(무안~영광간) 발굴조사보고서Ⅲ, 목포대학교박물관.
- 최성락·한옥민, 2001, 『함평 성남·국산유적』, 목포대학교박물관.
- 최성락·한옥민·한미진, 2004, 『영암 금계리 유적』, 목포대학교박물관.
- 崔完奎, 2000, 『馬韓墓制의 最近 調査 및 研究動向』, 『三韓의 마을과 무덤』, 제9회 영남고고학회 학술발표회 요지, 영남고고학회.
- 崔完奎·金鍾文·金奎正, 2000, 『益山 永登洞 遺蹟』, 圓光大學校 馬韓·百濟文化研究所.
- 柳基正 외, 2001, 『公州長院里遺蹟』, 忠淸埋葬文化財研究院.
- 한국문화재보호재단, 1999, 『淸原 梧倉遺蹟(Ⅰ)』.
- 湖南文化財研究院, 2000, 『나주 공산우회도로구간내 문화유적 시굴 및 발굴조사 현장설명회자료』.
- 湖巖美術館, 1995, 『利川 孝養山遺蹟 발굴조사보고서』.
- Carr, Christopher, 1995, Building a unified middle-range theory of artifact design, *Style, society, and person*, Plenum press.
- Conkey, margaret W, 1989, The use of diversity in stylistic analysis, In *Quantifying diversity in archaeology*, edited by Robert D. Leonard and George T. Jones, pp.118~129,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Sackett, J. R, 1985, Style and ethnicity in the Kalahari : a reply to Wiessner, *American Antiquity* 50 : 151-9.
- Shennan, S., 1989, Introduction: archaeological approaches to cultural identity, In *Archaeological Approaches to Cultural Identity*, edited by S. Shennan, pp. 1~32, Unwin & Hyman, London.
- Wiessner, P, 1983, Style and social information in Kalahari San projectile points, *American Antiquity* 48, 253-76.
- Wobst, H. M, 1977, Stylistic behavior and information exchange, In *For The Director: Research Essays in Honor of James B. Griffin*, edited by C.E. Cleland, pp. 317-42, Anthropology Papers No. 61, Museum of Anthropology, University of Michigan.

The advent of Large Jar coffin Tombs in Yeongsangang River Valley

Kim, Nak-Jung

Large Jar had been manufactured and used broadly in Mahan area from late second century. At first, it was used for various purposes, for example storing utensils at household and religious service at tombs. But its usage was shifted with the political expansion of Baekje. In late third century, large jar coffin appeared in tombs as an important burial unit at Yeongsangang river valley. It has specific traits such as saw blade-shaped design etc. That style is distinguished from Baekje's. Unification of form and style of large jar coffin signify the socio-political distinction between Yeongsangang river valley and Baekje. Large jar coffin was used emblematic style for this purposes by the political elites of the Yeongsangang river valley. This process was caused by political reason, that is, need for integration of the Yeongsangang river valley communities against the territorial expansion of Baekje state.

Keyword : Yeongsangang River Valley, Large Jar coffin Tombs, Emblematic Style, Polity